

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

주요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

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진익 과장, 우영진·박승호·조은영 분석관

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 현황

- 2019년 12월 최초 발병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(WHO)는 2020년 3월 11일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(Pandemic)¹⁾을 선언
 - 2020년 1월까지 중국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코로나19는, 3월초 이후 전 세계적 확산세가 본격화되어 3월 25일 현재 WHO 집계 기준 환자 수 40만명 돌파
 - 중국 누적 환자 수는 8만 1,848명으로 2월말 이후 환자 수 증가세가 둔화
 - 유럽 누적 환자 수는 3월초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탈리아 6만 9,176명, 스페인 3만 9,673명 등 총 22만 516명으로 전 세계 환자 수 중 절반가량을 차지
 - 미국 누적 환자 수는 3월 중순 이후 증가세가 가시화되어 현재 5만 1,914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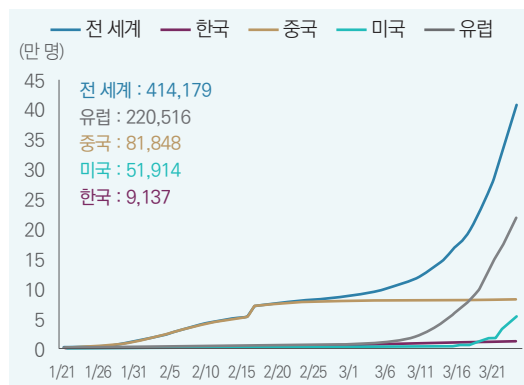
[표 1]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 현황(2020.3.25. 현재)

(단위: 명)

구분	전 세계	한국	중국	미국	유럽 ²⁾	이탈리아	스페인	독일	기타
환자	414,179	9,137	81,848	51,914	220,516	69,176	39,673	31,554	50,454
사망자	18,440	126	3,287	573	11,986	6,820	2,696	149	1,98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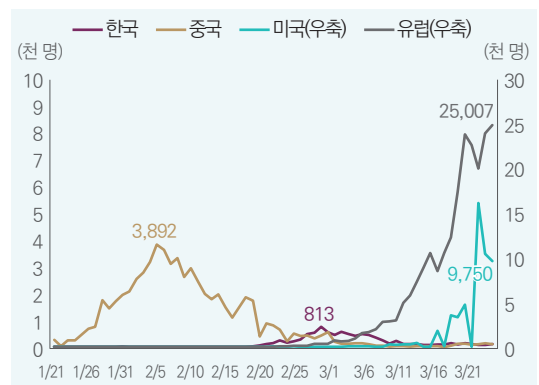
자료: WHO 상황보고서(3.25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[그림 1] 주요국 누적 환자 수 추이



자료: WH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그림 2] 주요국 일일 환자 수 추이



1)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 설립된 이후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은 1968년 홍콩 독감 및 2009년 신종플루 이후로 역대 3번째

실물경제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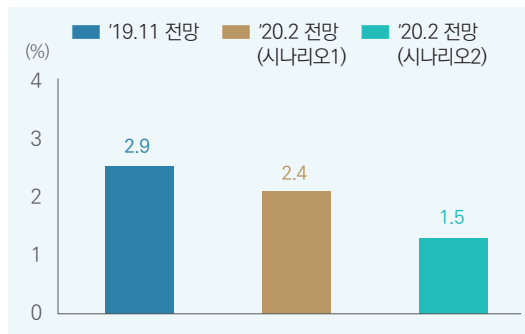
●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소비와 기업의 생산·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

- 중국의 경우 도시봉쇄, 생산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1~2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7.2% 감소하였고 2월 제조업 PMI²⁾도 전월(50.0)보다 14.3p 감소한 35.7로 급락
- 미국의 경우 항공, 호텔, 외식 산업 등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미국 2분기 GDP가 최대 -30%까지 급락할 위험성도 제기(Morgan Stanley)
- 독일,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 이동제한과 도시봉쇄 등이 시행되면서 유로존 소비심리 지수가 2월 -6.6에서 3월초 -11.6으로 급락하였고 부품조달 문제와 공장폐쇄 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

● 이에 OECD 등은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

- OECD는 “코로나19가 중국 경제를 중심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”을 가정한 시나리오①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2.4%로 전망하였고, “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”된다는 시나리오②에서 1.5%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(2.28. 기준)
- S&P는 중국·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(3.17. 기준)
 - 중국의 2.7~3.2%, 미국은 -0.5~0.0%, 유로존은 -1.0~-0.5%로 전망
- 이러한 전망치는 추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하향 가능성이 있음

[그림 3] OECD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



주: 수정 전망치는 2월 28일 기준
자료: OECD

[표 2] S&P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

(단위: %, %p)

구분	2019년 (A)	2019년(B)		
		하한	상한	차이(B-A)
중국	6.1	2.7	3.2	-2.9~3.4
미국	2.3	-0.5	0.0	-2.3~2.8
유로존	1.2	-1.0	-0.5	-1.7~2.2

주: 3월 17일 기준
자료: S&P

● 경기침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, 각국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

- 미국이 기준금리를 1.5~1.75%에서 0~0.25%로 인하하고 무제한 양적완화와 신용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, 한국·영국·일본·EU 등 주요국이 과감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
- 독일이 코로나19를 재정규율의 예외상황으로 규정하고 1,56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여러 국가가 직접소득지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수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
- 아울러 영국·독일·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부채 보증, 긴급대출 실시 등 금융시장 안정조치도 병행

2) PMI(Purchasing Managers' Index)란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, 생산, 재고, 출하 정도, 지불 가격,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0~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,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경기확장, 50 미만일 경우 수축을 의미

금융시장 영향

●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글로벌 신용위험 지표가 전반적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금자산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금리도 상승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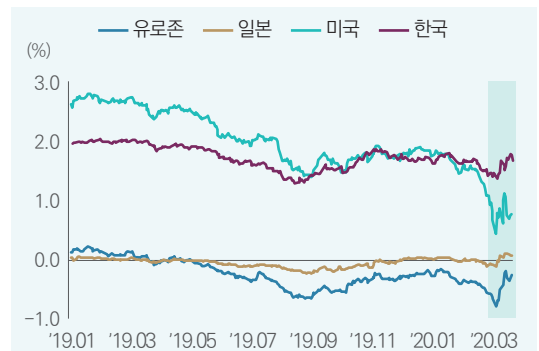
-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신용위험 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점증하며 2020년 이후 상승세
 - 3월 25일 한국 CDS프리미엄³⁾은 2020년 초 대비 13bp 상승한 35bp 기록
 - 글로벌 신용위험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동기간 240bp 상승한 542bp
- 한국 및 주요국의 시중금리는 최근 유동성 선호 증가 등으로 전반적 상승세
 - 국고채(10년물) 금리 추이를 보면, 3월 들어 한국 0.25%p, 유로존 0.36%p, 일본 0.17%p 상승한 반면, 미국은 0.30%p 하락

[그림 4] 한국 및 글로벌 신용위험 지표



자료: Bloomberg

[그림 5] 주요국 금리(국채 10년물) 추이



● 글로벌 주가는 전반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 환율은 변동성이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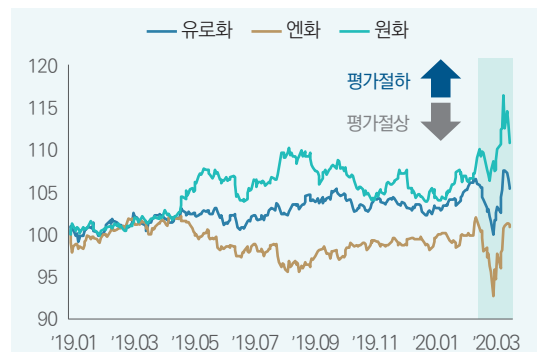
- 2020년 3월 주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악화 우려 등으로 하락
 - KOSPI지수는 3월 25일 기준 연초 대비 21.6% 하락한 1,705pt를 나타냄
 -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도 동기간 24.8%와 25.8% 각각 하락
- 주요국의 환율 변동성도 확대되며 3월 25일 기준 원화, 유로화, 엔화의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는 연초 대비 각각 6.5%, 3.0%, 2.3% 하락

[그림 6] 글로벌 주식시장 추이



주: 1) 선진국, 신흥국 주가는 MSCI지수 기준
2) 2019년초 주가를 100으로 조정
자료: Bloomberg

[그림 7] 주요국 달러대비 환율 추이



주: 2019년초 주가를 100으로 조정
자료: Bloomberg

3) CDS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 발행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프리미엄이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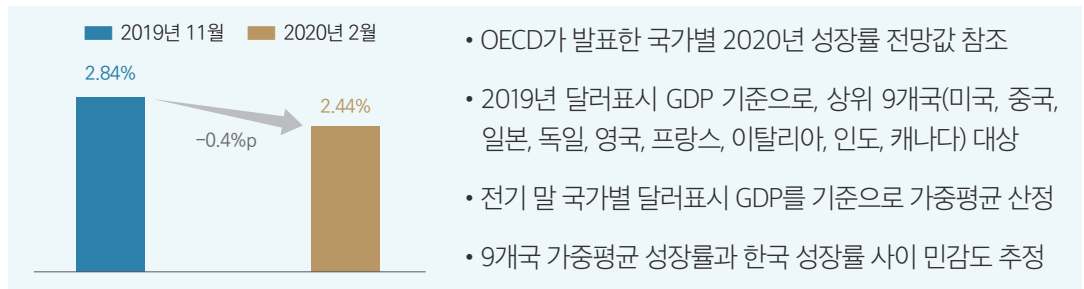
한국경제에 대한 영향

- 코로나19는 국내 경제활동 위축과 주요국의 성장둔화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의 하방 위험을 증폭시킬 것으로 추정

● (영향①)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국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른 영향: -0.29%p

- OECD가 2020년 3월 초에 발표한 주요 9개국 2020년 성장률의 가중평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(2019년 11월)에 발표한 수준에 비해 약 0.4%p 하락
- 지난 20년간 9개국 성장률 평균과 한국 성장률 사이에 성립하였던 민감도(약 0.72)를 감안 시 주요국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성장에 주는 충격은 약 -0.29%p

[그림 8] 주요 9개국 2020년 경제성장률 평균



자료: OECD 전망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● (영향②)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른 영향: -0.39%p

- 한국 성장률에서 주요 9개국 성장 둔화 영향을 차감한 값(잔차)을 기준으로 충격의 크기를 확인하면, MERS 시기에 상응하는 충격의 영향은 약 -0.39%p
-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서비스업(도소매, 운수, 음식숙박 등)이 큰 영향을 받은 만큼, 상기 수준보다 큰 충격이 발생할 하방위험 존재
- 잔차를 크기순으로 정렬할 때 상기 수준보다 큰 충격들의 평균은 약 -0.67%p

[그림 9] 한국 성장률에서 주요국 성장 둔화 영향 차감 후 잔차



자료: OECD 전망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● (종합) MERS에 상응하는 충격의 크기를 가정하면, 코로나19 확산이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(=영향①+영향②)은 약 -0.68%p

- 국내 경제활동 위축과 주요국의 성장둔화 정도가 3월 중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충격이 상기 수준보다 크게 나타날 하방위험 존재